

여학생회의 존재근거와 총여학생회

1. 여학생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학생회의 존재근거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는 매년 총여학생회 및 단위 여학생회의 선거 때에 제기되는 물음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여성문제는 그 사회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의 뿌리 깊은 봉건주의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고민과 더불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게 된다. 모든 사회운동은 억압의 대상이 되는 운동의 주체 세력이 있다.

특히나 이 사회에서 성차별이라는 억압의 문제를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학생회는 바로 이러한 두가지 원칙, 즉 문제해결의 단위의 필요성과 여성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을 받아 안아 여학생문제를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독립적 단위로서의 존재근거를 가지게 된다.

2.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의 여성국으로 존재하면 된다?

그렇다면, 왜 총여학생회라는 독립적 단위가 존재해야 하는지, 총학생회의 여성국 등으로 존재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총학생회의 여성국 등으로 있을 경우에는 물론 성차별이라는 문제가 여학우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학우와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가 맞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총학생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성문제, 혹은 성문제는 다른 제반문제의 하나일 뿐이다.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하는 활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활동범위가 학내문제에서부터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것들을 요구받아 왔고 또한 그렇게 해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학생회가 언제나 여성문제, 혹은 성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국 등이 총학생회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총여학생회로 있을 경우에서 살펴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제반문제의 하나로 여성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활에서 그 어느 한 부분도 여성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없으며, 이는 결국 내 전체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는 남성중심의 문화가 갖는 억압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데 있어 안정된 하나의 독립 단위가 된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그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를 실감하고 있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그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또한 이를 남학우들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총여학생회의 성과와 한계

총여학생회는 올해로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 1 대 총여학생회가 1988년에 세워지면서 현재는 8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 9대를 준비하려고 한다. 이에 지금까지의 역대 총여학생회의 활동들을 9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미흡하지만 간단하게 평가해 보고자 한다.

제 1 대와 제 2 대 총여학생회

1988년에 일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경선을 통해 제 1 대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었다. 이는 그야말로 연세대학교에서 여학생운동의 불꽃을 틔운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당시 87년 대투쟁을 이어받아 88, 89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온국민의 열망과 함께 대학가에도 투쟁의 흐름이 주류를 형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대와 2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회의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받아안기에는 그 만큼의 역량도 안 되었던 것도 있지만 사회 상황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1대 총여학생회장은 88년에 '북한여성 바로알기'라는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구속, 수감되었을 정도였다.

제 3

1990년
위해서
여학생들
느낄 수
달 등으
것이었고
그러
표자가
의의 수

제 4

1991년
해 내는
여학생들
소모임
과가 있
동하고

제 5

1992년
고자 했
호응을
상대채
가 되었
이밖

제 3 대 총여학생회

1990년이 되면서 3대 총여학생회가 가장 중심으로 고민한 것은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였다. 이를 위해서 총여학생회는 '단대여학생회 강화'의 기치를 내세웠다. 달마다 특정 단대를 지정하여 그 단대 여학생들과 만나는 계기로 강연회 등을 잡아 총여학생회와 단대 여학우들을 보다 자주 만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3월은 문대 여학우 만나는 달, 4월은 이과대 여학우 만나는 달 등으로 그 달에 맞게 강연회등을 진행시켰다. 이는 그 호응도가 높아 그 성과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 행사로 인해 많은 여학우들이 총여학생회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논의의 기본이 되었던 '단대 대표자 연석회의'는 여학생회의 대표자가 아니라 단대회장단이나 집행부 중에서 여학생이 대표자로 나와 참여한 회의였기 때문에 그 논의 수준이 높지 못했다.

제 4 대 총여학생회

1991년에는 3대 총여학생회가 대중적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단대 여학생회 등과 같은 단위를 건설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에 기반하여 각 과의 또래 모임을 강화하는 것을 기치로 삼았다. 여학생들이 끼리끼리의 또래 집단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과 내에서의 여학생 소모임을 건설해 내고자 했다. 이는 단대보다 과라는 보다 가까운 단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에 그 성과가 있다. 그러나 많은 과를 상대하다보니 역량의 부족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몇 개 과를 집중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제 5 대 총여학생회

1992년에 5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과 함께 여학우들만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많은 행사들을 제안하게 되었다. 최초로 대동제에서 '여학우 한마당'을 제기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4대 총여학생회에서부터 있었던 '여성학교'를 지속시켰다. 또한 '영상학교'를 열어 영상매체를 통해 여성문제를 학내에 널리 알리고 그 고민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것도 매우 좋은 문제제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동안 이화여대 등과 같은 몇 개의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기지촌 활동을 최초로 공개 모집하여 시작했으며 '김보은 사건' 혹은 '보은, 진관사건' - 의붓아버지에게 수년간 성폭행당한 김 보은양이 그 남자 친구인 진관군과 함께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더이상 성폭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다 시비끝에 말리는 과정에서 진관군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 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을 학내에 알려 나갔다. 그러나 아직 단대 여학생회나 과 여학생회의 건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제 6 대 총여학생회

1993년 6대 총여학생회는 5대에서 제기한 다양한 형식의 행사들을 안착화시켰다. 여성학교, 영상학교, 여학우한마당 등을 계속 진행시켰다. 또한 단위 고민을 함께 하면서 많은 단대 여학우들을 만났다. 그것이 여학생 모임으로 꾸러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상대 여학생모임 '야시'가 만들어졌으며 문대에는 과 단위 여학생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간대, 의대, 교과대 등의 단대 여학우들과의 잦은 교류를 이루어 나갔다. 또한 아가라카 응원단의 곡 중에서 '언더 더 씨'의 가사가 여학우의 성적을 C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항의하여 그 곡을 응원곡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따뜻한 ...*

특히 6대 총여학생회는 '윤금이씨 사건' - 동두천 기지촌에서 미군 병사 케네스 마를 이병에 의해 윤금이씨가 항문에 우산이 꽂히고 자궁에 콜라병이 박힌 채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 - 을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갔다. 기지촌 활동을 통해 기지촌에서의 여성의 억압을 폭로하고 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분노를 미군측에 전달하여 결국 케네스 마를 이병은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제 7 대 총여학생회

1994년 7대 총여학생회는 보다 많은 여학우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하면서 그 유명한 *ㅋㅋㅋ* '연세여성'을 복간시켰다. '연세여성'은 4대 총여학생회에서 역량의 부족으로 중단되었는데 이를 복간시켜 다시 1호부터 발행하였다. 연세여성의 만화는 많은 연세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이후 '재밌는 연세여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여학생휴게실 관리에 힘써 메모판을 통해 여학우와 의사소통하고자 했으며 그밖에도 기존의 행사들을 진행시켜 나갔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내에 성폭력 상담 전화(361-2118)를 개설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6대에서의 단대 여학우들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단위가 와해되기도 했던 한

계를 가지게 되었다.

제 8 대 총여학생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총여학생회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를 해 보면 7대까지의 문제의식을 총체화하여 그 기초를 '여성이 먼저 변하는 운동, 남성과 함께 넓어지는 운동, 사회 속에서 높아지는 운동'으로 삼아 앞으로의 여학생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세여성'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내용도 풍부해지고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영상학교와 여성 학교를 묶어 '여성문화예술제'로 승격시켜 영화뿐 아니라 연극, 전시물, 일일잡집등의 형태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 특히나 1학기 내내 성교육특강을 최초로 실시해 이를 정식으로 교양선택과목으로 신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북경 여성대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여대협) 안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낮은 목소리'의 상영과 더불어 매주 수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집회에 관심있는 연세인들과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기활과 농활 등을 수행함에 있어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에도레'가 최초로 농촌탁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단대 여학생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를 가지지 못해 총여학생회와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았으며 '여성문화예술제'를 단대와 과 여학생회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적 issue fighting
기총단위와 연계
문화제/마케

기획 시리즈 하나

1. 성정치 - 서구를 중심으로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 제프리 위크스, 1994> 요약문

지난 20여년간 산업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형세가 변화됨에 따라 성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결집의 가능성도 크게 강화되었다. 불황에 뒤이은 급격한 경제성장, 남은 계급적 구분의 와해, 복지주의의 등장과 부분적 상승과 침체가 반복되는 새로운 경기의 형성, 성들간의 관계 및 가족, 지역 공동체 내부의 중요한 변화들은 새로운 사회적 긴장과 적대, 지배와 저항의 형태들을 만들어 냈고, 이는 전통적인 정치형태와 정치방식을 뒤흔들어 놓았다. 여기에 흑인 운동, 여성운동과 같은 전통적인 저항 형태와 더불어 새로운 저항형태들 - 예컨대 평화운동, 환경운동, 성적 선호와 선택을 둘러싼 여러 저항운동(성정치? 동성애운동?) - 들이 생겨났다.

성 급진운동은 수단 면에서나 목표 면에서나 전혀 통일적이지도, 응집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성 급진운동은 당대의 정치학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고, 새로운 '이해 공동체', 새로운 지지층, 새로운 도덕적 의제를 형성했다. 그 결

과 '정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상당히 확대되었는 바, 이제 정치는 새로운 사회운동 그 자체는 물론, 새로운 관심 범위 - 지금까지는 그저 사사로운 일로 치부되었던 건강, 육체, 가치, 선택, 쾌락 등에 대한 관심들 - 를 두루 망라하게 되었다.

성차와 성적 분화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투쟁, 이야말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성정치의 의미이다. 하지만 한편 성정치는 우리 문화 내부에서 성의 의미, 우리의 삶과 친교관계에서 성에 할당된 위치, 정체성과 쾌락, 강제와 권력, 선택과 합의 등의 위기가 심화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1980년대 성정치의 핵심적인 역설은, 성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 쪽은 좌파지향적 급진사회운동이었는데도 정작 여러 힘과 세력들을 분기시켜 효과적 성과를 쟁긴 쪽은 바로 우파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여실히 나타났는데, '도덕적 다수'라는 집단은 레이건을 대통령 관자에 앉힌 신통 보수적 동맹군의 핵심적 보조부대가 되어 주었다.

성적 다양성이 끝없이 증대되는 현실

우리들의 생각

에서 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 질문이 성정치의 딜레마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이제 이런 복잡미묘한 쟁점을 다룰 때, 많은 이들이 정치, 가치, 그리고 윤리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깨닫고 있다. 요컨대 그 세가지 영역은 근대적 성정치 내부에서 불가분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결국 선택이 강요되고 작용하는 맥락이 문제의 핵심이다. 성적 가치는 폭넓은 사회적 가치들과 분리되기 어려우며, 그 사회적 가치 역시 천차만별이다. 즉 집단에 따라 다른, 심지어는 정반대되는 가치질서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족을 분리하고자 획책하는 인종주의적 이민절차에 맞서 가족을 방어하고자 투쟁하는 흑인 여성해방운동가들에게, 백인 여성해방운동가들이 하는 가족 비판은 왕왕 인종중심적이고 억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선택이라는 답론은 상이한 개인적 욕구와 목표뿐 아니라 생존수단의 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 다양성과 선택의 우월성이라는 답론을 각각의 고립적인 단자들이 여러가지 선택가능성

가운데서 그 혹은 그녀의 마음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식으로 순전히 개인의 의식적 행동으로 이해될 위험이 다분하다.

하지만 지난 20여년간의 성정치학이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듯,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을 보증하는 것은 집단적 행동일 뿐이다.

우리는 서구의 성적 현실을 변화시킨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여성과 동성애자들이 새롭게 개인적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성적 욕구와 욕망의 언어, 이는 모두 전적으로 '집단적 자아 실천 collective self activity'이라 부를 만한 집단적 실천의 산물이다.

성 민주주의는 개인적인 잠재성과 성장을 한정하는 장애물들 예컨대 경제적 착취와 계급, 인종적 억압과 성별 불평등, 도덕적 권위주의와 교육적 불이익, 빈곤과 생활불안이라는 장애물들이 점차 소멸해가는 보다 폭넓은 민주화 과정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실재적인 곤란, 욕구와 이해관계의 실재적 분할, 우열이나 욕망, 의지, 당위를 둘러싼 실재적 갈등이 죄다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

반대로 성 민주주의 목적은 이런 차이들과 갈등들을 민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적 욕구와 갈망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방책들 - 요컨대 사적인 쾌락과 공적인 정책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 - 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도덕적 다원주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변혁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기획 시리즈 둘

2. 성정치국의 한계 - 총여학생회와 그토록 다른가?

32대 총학생회는 그들의 공약대로 성정치국을 통해 성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1960년대와 70년대의 서구사회를 풍미했던 급진 여성해방론의 하나로 제기된 성정치를 한국사회,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그것에 기반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성정치학이 여성해방운동뿐만 아니라 동성애해방운동이나 정치학적인 부분으로까지 그 범주가 넓어지고

다양해졌으나,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성정치란 생소한 단어였으며, 이는 학우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고 신선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서구의 해체주의적 냄새로 인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학우들의 상황에서 성정치국은 그들이 총학의 집행부로서의 역할, 즉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시키는 일에 열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제를 준비했는데 이는 학우들보다도 마스크에서 열띤 취재경쟁이 붙을 만큼의 파급력을 자랑했다.

바로 여기서 총여학생회와 성정치국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첫째, 그 위상과 역할이다.

즉, 총여학생회는 5천 여학우의 대표성을 가진 여학생들의 자치조직이며 이는 여학생문제를 여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총학의 성정치국은 총학의 집행단위로서 총학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 여기서는 성정치의 내용들 - 을 사업형식으로 풀어나가는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

둘째, 표방하고 있는 내용성의 차이
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 특히 여학생운동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반면, 성정치국은 성정치운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성을 둘러싼 제반 상황과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과연 이 둘은 지향점이 다른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지향점의 정확한 표방이 모호한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째, 운동의 주체 세력의 차이다.

총여학생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학우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 일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여학생운동의 주체 세력이 바로 여학우 대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코 함께 살아가는 남학우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8대 총여학생회에서 내건 기치가 '여성'이 먼저 변하는 운동, 남성과 함께 넓어지는 운동, 사회속에서 높아지는 운동'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문제를 안고 살아 가고 있는 억압은 남학우들보다 여학우들에 더욱 그 초점이 맞추어짐을 명확히 해야 한

다. 우리가 보편적 시각으로 이야기했던 것의 대부분은 바로 남성중심의 사고에 기반하여 아버지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한번도 자신들의 조직을 건설해 본 적도 없으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겨우 몇 십년 동안에서야 여성해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정치국은 총학의 집행단위로 존재하면서 뚜렷한 운동의 주체 세력이 없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총여학생회는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논리까지 가능하다. 여학생들의 자치기구가 없



기획 시리즈 셋

3. 성정치운동의 한계

어도 성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어떤 학생회에서도 성에 대한 대담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총학생회와는 사전에 연계를 갖지 못했다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몇 학우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 나름의 표현방식으로 이러한 수 많은 이야기들을 형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한계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용적인 부분에서 '성'의 의미의 모호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성'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sex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gender일 때도 있으며, 결국 통합적인 sexuality를 의미해 버리고 말다가도 '침실'과 '사적인 영역'의 공적인 영역으로의 변

화'에서의 경우처럼 다시 sex로 환원되어 버리기도 한다. 즉, 우선 성정치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케이트 밀레트의 경우처럼 확실히 sex인지의 여부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난 성정치 문화제를 마치며 쓴 자보에서 보면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성을 sex와 gender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을 확인하면 그것이 아니라 "성을 이제 gender로 부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 성정치운동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성정치라는 범위가 기존의 논의에서 보다 훨씬 확대됨으로 인해 여성운동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정치라는 것이 위에서 그 '성'이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결국 어떠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즉, 늘상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서 문화제의 형식을 빌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혹은 학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다.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해결을 어

우리들의 생각

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있어서 기존의 총여학생회의 방식과 얼마나 차별성을 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세째, 성정치 운동은 그 지향과 목표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여성운동이나 여학생운동의 지향과 목표는 그나마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여성 해방, 인간 해방으로 이야기되는 기존의 억압과 착취에서의 해방과 이를 이루기 위한 변혁적 운동성 등이 주요 테마로 다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성정치 운동은 성해방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또 다시 모호한 관념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이 가지는 성적 주체성은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그것의 제반 상황을 얻기 위한 투쟁 - 서구사회에서의 사례에서처럼 성정치의 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 예를 들면 여성해방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전반적 토대마련 등 - 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살아남기 위해, 혹은 여성

운동을 안정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제반 조건은 참으로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계급 - 여성이 노동자일 수도 자본가일 수도 있으므로, 민족적 문제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그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혹은 그들이 일관된 한 가지 주장, 즉 '성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한한다면, 결국 운동으로서 쟁취해내야 하는 지향과 목표가 있다기 보다는 비판 세력의 하나로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네째,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으로 바로 성정치 운동을 들고 나옴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척박한 여성운동의 현실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다.

누구나 인정했듯이 우리 사회의 여성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한 상태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뿌리깊은 가부장제의 역사와 더불어 이식된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중적인 억압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파시즘적인 군부독재의 정치적 경험이 더욱 여성의 삶을 옥죄어 왔던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여성운동단체들, 혹은 여학생회의 그동안의 눈물겨운 성과들을 너무 쉽게 평가해 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연대해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여성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는 성장치운동을 내세워 이 사회의 여성문제의 핵심을 오히려 흐려놓지는 않았는가하는 부분을 말한다. 물론 하나의 담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어야 할 다양한 시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관점으로 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연대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하게 됨을 각인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는 성희롱, 성추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회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패소하고 있고, 세계여성대회에서 전쟁범죄로 규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실천의 문제로 출발하자.

나의 문제, 나의 현실에 기반한 여학생운동의 총여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내가 본 성정치 문화제

얼마전 우리 학교에서는 학내에서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의 외부 언론을 통해 학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성정치 문화제가 있었다. 내가 성정치 문화제를 본 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주최측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고 노력했다. 도서관 입구나 민주 광장에 붙은 대자보 논쟁(기독교학생연합 소속의 한 학우가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반박한 글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져 있었다)이라든가, 문화제 마지막 날 부서지고만 민주광장 중앙의 조형물(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 속에서 남녀성의 상품화를 비판하고자 하는 듯했다), 그리고 성정치 문화제의 자료집 등이 내가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도 성정치 문화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잠깐 잠깐 읽은 자보를 통하자면, 성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어 성에 얽혀있는 정치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말 그대로 성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신체, 성이라는 것을 둘러싼 억압적 굴레에 대해서 그야말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들, 조형물(심지어는 콘돔도)들을 설치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내 앞에서 있던 한 남학우는 농담으로 어디 한번 먼저 보자는 식으로, 혹은 뜬금없이 보자는 식의 장난끼 섞인 태도를 보였고, 한 여학우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 버렸다. 한 친구는 내게 "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되는 끔찍하고 선정적인 성범죄 관련 기사가 또다른 간접 강간이 되는 사회에서 이는 또하나의 간접 성폭력이 아닐까?" 라고 열을 내며 말했다.

또 한 후배는 성정치 문화제 기간 중에 상영된 영화를 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중간에 나와 버렸다고 한다. 그 영화를 통해 내 후배가 느낀 것은, '동성애나 수간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의 일대 혼란이었다.

총학생회라면 연세 안의 모든 학우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 단지 그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설파(?)하려는 자세가 과연 연세 학우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대변인, 심부름꾼을 자처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일 것인가?

또 한가지 내가 자보와 자료집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은 이론이야.'라는 것이었다. 실천이 아

닌, 학문의 한 분야,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성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 가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이것이 성을 신비의 베일 속으로 감추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성을 까발려 버리자는 식의 논리보다는 성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세우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론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욱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이 아닐까.



맹목의 질주

- 제8대 총여학생회 비판 -

① 역대 총여학생회, 혹은 자주적 여학생운동

선거는 해마다 반복된다. 여기서 '반복'은 중요하다. 총여학생회 선거는 해마다 '반복'된다. 후보의 면면만이 바뀔 뿐인 이 '반복'의 일상성에 대해 그러나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총학생회 투표용지에 '덤'으로 얹혀지는 총여학생회 투표용지를 들고 (학우들이 찬성에 손을 들던, 반대에 손을 들던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학우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거대한 매너리즘의 요식행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또는 그렇게 강요받고 있는가.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제 8 대 총여학생회, 또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에서 역대의 모든 총여학생회와 그들의 주장 -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우리의 이 일상적이고 암묵적인 동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결론은 안타깝게도 무척이나 부정적인 것이다.

일전에 '성정치 문화제'가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적이 있었다. 광신교 집단에 의

한 테러나, 가부장적 도덕군자들의 혐오스러운 욕설 따위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기도 해서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런데 정말로 희한한 반응은 '제 8 대 총여학생회' 명의로 나왔다. 대강 줄여서 말하자면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무분별하게 서양의 사상을 추종하여 벌이는 성정치 문화제를 개탄한다"는 것이었다. 성정치문화제에서 왜 정신대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여성운동의 핵심적 이슈가 정신대 보상문제라는 주장인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의아스러워하는 점은 "서양 사상의 추종"이라는 대목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에 빠진

다. 서양사상의 추종이 문제가 된다면 그 반의어로서의 '동양사상'이 있다는 말일 터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양적' 여성해방사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총여학생회의 활동과 주장, 위의 대자보의 전후문맥을 파악해 볼 때 그것이 '자주적 여성운동'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총여학생회에 서는 자주적 여성운동을 누누히 강조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알뜰한 추측의 끝에는 새로운 미궁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주적 여성운동'이라는 미궁이다.

② 미궁의 끝 - 새로운 미궁의 시작

우리는 제8대 총여학생회의 활동과 주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자주적 여성운동'의 사상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여성의 존재의 모든 측면(계층적, 계급적, 민족적)에서의 운동이 자주적 여성운동이다"라는 고추상적 표현으로부터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비교하여 그 존재를 (귀납적으로)역추적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총여학생회의 관점의 끊임없는 역설을 짚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인 '자주적 여성운동'이 태하고 있는 주체사상적 신념체계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해방과 모성애의 역설

스스로 "다소 추상적이지만"이라는 전제를 단 제8대 총여학생회 선거정책 자료집중 정책총론을 살펴보면 묘한 역설을 찾을 수 있다.

다른 것을 모두 떠나서 여성해방이라 함은, 적어도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치지워진 여성성의 울타리 때문에 억압당하는 사회적/개인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위치지워진 '여성성'중에서 여성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가장 위대한 이데올로기는 '모성애'에 대한 것이다.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강제로 연결된 자식의 육아, 교육에 대한 책임론은 모성애 이데올로기의 본질이며 사회적 불평등의 시작이다. 때문에 우리는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제8대 총여학생회 선거정책 자료집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접하고서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위치지워진 여성성중에서 여성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가장 위대한 이데올로기는 모성애에 대한 것이다.

"나 자신보다는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품성을 민족의 품성으로 발전, 제도화시켜야 하며 올바른 모성은 내 자식이 귀한 만큼 사회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식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들의 거룩한 희생을 조금이라도 훼손코자 함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모든 책무에 얽매인 채 당신들의 전 인생을 희생당하신 비극의 역사,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의 여성해방운동이 당당하게 선언되었던 것

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 비극적 역사의 논리를 이제 전사회에 확장시키자니 이것이 대체 무슨 주장이란 말인가. (뒤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모성애에 대한 강조는 주체사상적 신념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착각(또는 왜곡)까지를 포함시키면 이들의 '역설'은 더 이상 역설이 아닌 우리들의 진지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치 여성이 이 사회의 중심인 것 처럼 꾸며놓은 아래의 글을 담담히 한번 읽어보거나 하자.

"여성은 소비, 환경, 교육의 중심자이며 따라서 사회적 판단만 있으면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사회와 생활의 중심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주적 여성운동인 것이다."

콘돔 사용법의 성평등

이번에는 8대 총여학생회의 핵심사업중의 하나였던 성교육 특강을 살펴보자.

특강 자료집의 후미에는 콘돔 사용법이 설명되어 있다. 그 '콘돔사용법'이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도 아주 비슷하다.

콘돔을 봉지에서 꺼낸다 -> 콘돔을 씌운

다 -> 벗겨서 버린다

게다가 아주 상세한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다.

콘돔 사용법을 비롯한 피임약 사용법의 홍보가 왜 필요한가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남성은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데 반해 여성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여성의 이런 태도는 사랑하는 남성과의 성관계를 꺼리게 하고, 남성의 요구에 못이겨 행하는 성관계 이후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낳는다. 또 그런 소극성이 성관계시 피임에 대한 주장

을 꺼리게 하고 이는 인공유산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를 낳는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 피임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성교육 특강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

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죠.....무엇이 진정한 남성다움이고 여성다움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에요"(연세 여성 10호(3월16일), 6면에서)

진정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위하여!

성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 실용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도대체 왜인가? 남성 성기의 구조와 여성 성기의 구조, 성이 사회에서, 또는 개인에게 차지하



는 역할동등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성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은 어쨌든 중요하므로? 무엇인가?

주최측에서는 "진정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찾기 위해서"라 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남성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여성다움은 또 무엇인가? 남성다움이란 남근의 감성을 말하고 여성다움은 질의 감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 논리는 장구한 역사속에서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 논리가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콘돔 사용법이나, 조루의 원인이나 불감증의 심리학이 아니라 바로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논리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8대 총여학생회는 어떤 답을 해줄지 궁금하다.

제국주의, 민족주의, 통일운동

그리고 여성예방운동

제8대 총여학생회 활동의 상당부분은 주한미군과 관계된 것이다. 미군 기지 주변의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기지촌활동)이나 미군범죄에 대한 규탄, 그에 따른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선전등이 그것이다. 지금도 교정에는 故 윤금씨에 대한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또 '영부인 손명순여사' 마저 북경 여성대회에서 외쳐대던 정신대 보상문제도 총여학생회의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였다.

위의 활동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

고 싶은 생각은 없다. 기지촌 여성들의 생활을 돕고, 극악무도한 미군들의 성범죄를 규탄하는 것, 정신대의 잘못된 고난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보상책을 요구하는 활동이 그릇될 이유는 없다. 우리들의 의혹이 작동하는 곳은 그런것에서가 아니라 일관된, 아주 일관된 신념의 체계가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데에서다. 이 신념 체계와 여성운동과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결합에 대해서다. 그 신념의 체계는 '제국주의적 억압의 철폐'와 '조국통일'이다.

우리는 미국과도 같은 길들을 더듬어, 총

여학생회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인식의 혼란과 역설이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주체사상적 관점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한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성억압과 불평등에 대한 주체사상적 세계관의 표현이었다.

③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목표 - 가장 평등한 기부장제, 가장 여성다운 이성애주의

제국주의적 압제에서의 해방 = 성평등 = 여성해방

총여학생회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제국주의적 억압-착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래서 여성불평등의 기원도(!) 제국



주의적 억압이라 생각한다. 가장 강력한 미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군국주의는 따라서 여성운동의 일차적인 투쟁 대상이다. 총여학생회의 대외적 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미투쟁들은 그같은 신념체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제국주의적 착취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픈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그저 우리들의 주변을 색안경을 끼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라는, 우리들의 슬로건 "가장 현실적이 됩시다"를 되새겨보라고만 하고싶다. 우리는 제8대 총여학생회의 맹목적 신념체계의 부속물로 전락해버린 여성해방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은 자주적 여성의 조건을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여학생 운동,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만큼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여성에게 관련된 투쟁에서부터 자주, 민주, 통일 투쟁까지 몸이 몇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그러나 여학생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다.....수퍼우먼 콤플렉스에 걸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수퍼우먼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제8대 총여학생회 선거정책자료집 중에서]

수퍼우먼 콤플렉스에 걸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수퍼우먼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이 엄청난 말장난 속에 담겨진 파쇼적

발상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그릇된 일인가! 마치 여성 노동자들을 대하는 가부장적 사고에 찌든 남성 노동자들의 태도 - "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애보고, 팔래하고, 밥 짓고, 세금영수증 챙기는 일은 여전히 너의 몫이다!" - 가 선연히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만의 착각인가! 여성은 왜 더욱 힘들어야만 하는가?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 치고,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투쟁해서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통일조국이 건설되면 여성의 해방된 세상은 오는가? -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해방된 나라, 북조선 인민공화국

북한이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은 남한과는 달리 이미 50년 전의 일이다.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완전한 사회주의 무

계급사회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런 북한에서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녀성은 꽃이라네》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 가정을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생활의 한자리가 비어 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 평양신문 1991.1.19.

북한에서 여성은 '가정의 꽃'이다. 도대체 어떻게 '사회주의 무계급사회'인 북한에서, 남한에서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꽃' 따위와 같은 여성에 대한 수식어-이미지들이 버젓이 등장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70-80년대에 벌어진 이른바 '김정숙(김일성의 처) 녀사를 배우자'는 운동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김정숙의 '혁명전사의 자세'를 소개한 회상기를 보자. 해방직후의 겨울, 함박눈이 내린 오후에 눈을 대충 치운 강길복이 녀가래와 비를 주섬주섬 헛간에 넣어 두었다. 이때 김일성이 오후 출근을 하려고 나오다 헛간을 들여다 보고, 녀가래와 비는 쓰고 난 후 눈을 잘 털어서 제자리에 잘 놓아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비와 녀가래를 손에 집어들었다.

"그럴 때 어느새 다가오신 김정

숙녀사께서 열른 녀가래와 삼을 공손히 받아 드시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곧 다시하겠습니다"하고 정중히 말씀드리고는 눈을 깨끗이 털어서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보기 좋게 놓으셨습니다."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녀사를 모시고', <조선녀성> 1982.2]

이 일화에서 이미 눈치챈겠지만 당시에 여맹에서 벌인 '강반석, 김정숙 녀사 따라배우기'에서 강요한 여성이란 "1) 현명하고

강인한 '어머니'(모성에) 2) 헌신적 '안혜'(혁명가의 보조자) 3) 알뜰한 주부 4) 며느리이며 시누이(양보와 순종) 5) 혁명적 노동계급 6) 여성다움"등을 말하는 것이다. 남한에서조차 거부되어지고 있는 유교적 가족관계에서의 여성의 모습이 북한에서는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를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연세여성>에서 찾아내었다. <연세여성> 14호의 '북한 여성 바로 알기'란에 따르면 1995년 쌍용그룹의 20대 남성사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 여성간의 가사분

담에 찬성하는 사람은 58%였다. 그에비해 1987년, 북한 남성들은 남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80% 이상이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연세여성>에서는 그 밑에 갖가지 변명으로 옹호를 시도했지만 통계수치의 위력

적인 힘을 전혀 상쇄시키지 못했다)

이와 같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확고부동함은 주체사상과 그 핵심인 수령관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물론 북한사회에서의 모성보호정책(탁아소, 출산휴가등)이나 경제활동에의 참여 장려정책 같은 것은 남한사회에 비하여 월등히 진보적이다. 그러나 여성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관계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관념과 가부장제의 문제들에 더욱 깊숙히 연관되어 있다면 북한은 결코 여성이 해방된 사회가 아니다. 이는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대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여성해방은 계급해방과 동시에 수행된다는 관점을 견지했던)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평등한 가부장제, 가장 여성적인 이성애주의

여성 불평등의 기원을 제국주의로, 여성 운동의 핵심과제를 통일로 설정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가장 평등한 가부장제'다. 그러나 '평등한' '가부장제'는 언어모순이다. 즉 역대 총여성학회의 관점으로는 '성평등'의 성취조차도 불가능하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국가권력이 허용할 수 있는 만큼의 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 뿐이다. 여성은 끊임없이 '투정부리는 집단'으로 매도될 뿐이다.

나아가서 '자주적 여성운동'의 관점은 가장 여성적인 '이성애주의'를 당연시, 공고히 한다. 아니 그보다 성이라는 담론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다. 성정치 문화제에 대한 8대 총여성학회의 태도나 성교육 특강에서 보여준 성에 대한 모든 편견은 '무능'에서 비롯된다. 그들이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대해, 동성애 자체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들이 성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성의 상품화를 비판한다'는 수준이거나 '올바른 이성애적 여성성을 확립하자'는 수준일 수 밖에 없다. 1995년의 한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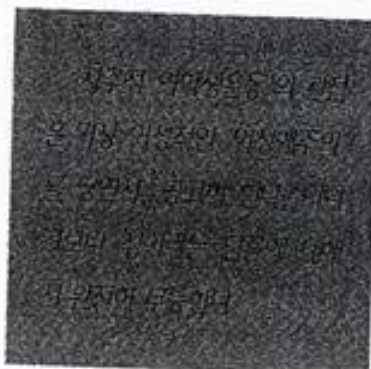
에서라면 충분히 '문화방송 연중 캠페인'이 될 수도 있는 소재다. 그러나 성은, 성의 정치학은 보다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④ 여성해방운동의 보수주의를 비판 한다.

참여의 결여와 매너리즘

모든 보수주의는 대중과의 괴리로부터 비롯된다. 대중의 참여가 결여될 때 보수화

는 시작된다. 그것은 관료주의의 기원과도 다르지 않다. 8대 총여성학회의 사업은 바로 참여의 결여로 요약될 수 있다. '여성문화 예술제'에 몇명의 학우가 참석했나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첫째는 5천 여학우 스스로, 2만 연세인 스



스로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몸을 직접 맞부딪드리며 성평등의 문제에 뛰어들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며, 두번째는 학우들의 정서와 그들의 관심, 지향과는 상관없는 사업들만을 반복해왔다는 뜻이다.

매년 반복되어온, 소수의 용기있는 학우들에 의한 기지촌 활동이나 애도래 활동, 사업의 홍보나 정파적 견해의 대변장이 되어버린 [연세여성], 간혹가다 불은 제국주의 반대 플래카드나 대자보등이 그런 사업들이다. 거기에 전여대협이나 서여대협의

관성적인 사업들이 덧붙여져, 5천 여학우들
파는 상권이 없는데 스스로만 바쁜, 그러면
서도 바쁜 것에 루트해하며 살아가는 매너
리즘의 전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매너리즘
은, 참여의 결여는 모든 사고의 진전을 가
로막는다. 그것이 보수주의로의 길이다.

계몽주의의 오만과 방만

보수주의는, "내가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겠소"와 같은 태도 즉, 계몽주의를
다른 한 축으로 한다. 8대 총
여학생회에서 그 대표적인 사
업이 바로 [연세여성]이다. 1
학기의 '연세 여성문화 예술제'
'도 영화와 연극을 '보여주는'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일치한
다. 학우들의 능동성을 차단하
고 학우들을 수동적 대상으로
만 파악하는 오만함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오만함은 곧 활동의 방만함으로 이어진다.

가면 또는 지킬박사

역대 총여학생회의 운동을 싸잡아서 '여
성운동의 가면'을 쓴 통일운동'이라거나 '매
너리즘에 빠진 보수주의'로 단칼에 매도하

고 싶지는 않다. 그 안에서도 많은 진지한
노력들이 있었으며 눈물어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있었음을, 더욱 중요하게는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킨 커다란 성
과가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고 경
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성해방은 열
의만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 스스로의 논
리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만약 스스로의 논리를 주체사상에서 찾
고 있다면, 여성운동을 통일운동의 부속물
따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면'을



쓴 '늑대'라 부르는 데 주저하
지 않을 것이며 보수주의라 낙
인찍는 데 고민하지 않을 것이
다.

8대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세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관점
들이 마구 뒤섞인 채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크게 '자주적 여학생운동'과 그것으
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 사이의 혼돈이다.
때문에 우리는 8대 총여학생회에서 '가면'
보다는 '지킬박사'를 찾아낸다. 하루빨리
그 양면성에서 벗어나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현실적인 자세로, 현실적인 운동으로 전환
하기를 희망할 뿐이다.

여성의 일상, 너무도 정치적인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좀 더 특별하게는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학생회 선거에 덤으로 얹혀지는 한장의 종이 이상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혹은 지닐 수 있을까? 더 트집 잡아 보자면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의문은 여기에서부터다.

하나.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다

지금, 여기서, 일상을 견디어 낸다는 것은 삶의 무게들을 매순간순간마다 짊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전 하나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커피 자판기의 커피처럼 가벼운 듯한 일상은 사실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또한 인스턴트 커피 것처럼, 친구들과의 수다와 학점 걱정과 남자 친구와의 연애 관계, 이런 저런 모임들에서의 일들과 인간 관계들... 그 분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저 사생활일 뿐인 일상이 쓰디 쓰다고? 사실, 그렇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즐겁기만 여자 친구들과의 수다가 이런 저런 연유로 알게 된 남자 선후배, 친구들간의 술자리보다 다소 '덜'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들은 화장 얘기하고 남자 친구 얘기에 남들 홍보기 정신 없다고 그런다. 글썄다... 학점? 그래...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학점이 좋아야 한가지? 여자들은 학점이 좋아도 취직하기 힘들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는지 시험 땀 노트 빌려가면서 '여자들은 자기 것만 잘 챙긴다'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남자 친구! 이 힘든 세상에 나의 반쪽을 얻었다는 충만감에 들뜨기도 하지만,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런 일상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이 조금도 겹쳐지지 않는 이가 과연 우

리 중에 있을까? 그저 '삶이 어디 만만하겠나'라고 좋게 좋게 넘기기에 너무도 석연치 않다.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갑갑함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에겐 정치란 너무나 먼 이야기 같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근엄한 얼굴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솔직한 느낌은 나랑 관계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이야기가 한참 뻗 것 같기도 하다. 그게 내 갑갑한 일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케이트 밀레트가 그녀의 책 '성의 정치학'에서 쓴 말을 옮기는 것은 잘난 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도 절절하여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와 같은 남녀의 친밀한 관계의 장면에서부터 정치적 관계라고 하는 보다 큰 문맥으로 옮기는 것은 대단한 비약이 있다. '성의 정치'라는 용어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성관계를 정치적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가피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여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하는 정치는 회의, 의장, 또는 정당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협의의 베타적 세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라는 용어는 권력 구조적인 재관계, 즉 한 무리의 인간이 다른 무리의 인간을 지배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나는, 우리는, 한무리의 인간인 '여성'인 것이다. 적어도 현실은 그렇다. 어느 한 인간이 '남성'인가 혹은 '여성'인가에 따라 이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위치 지위점이 달라진다. 우리는 추상적 층위에서 '인간' 일반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보다 낮은 차원, 즉 일상적 수준에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이거나 '남성'이다. 우리가 정치적 전략을 생각할 때 이것은 주체를 구성하고 담론을 가로지르는(즉, 여성/남성을 성적 주체로서 사회화하고 그들의 욕망과 욕망의 충족 방식을 규정하는) 권력의 작용들이 정치적 논쟁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이 전쟁터란 말은 이런 의미다. 일상, 수많은 의미망들이 교차하면서 상충되는 기호와 담론들이 각축, 경합, 협상하는 장이며 서로 다른 물적기반들이 드러나고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며 계급, 인종, 성적 선호, 성별 등 다양한 변수와 주체들이 맞물려 구성되고 생산되는 장이라는 것이다.

둘. 일상에 구멍내기 총여학생회 선거

대학을 다니는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정치적인데 유 일하게 들어 본 정치적인 듯한 기구는 '총여학생회' 밖에 없는 듯 하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낯설다. 일단은 '정치'라는 말이 주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듯한 느낌 때문에 그러하고 다르게는 '총학생회'가 멀게 느껴지는 느낌과 비슷하다. 아니,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총학생회'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 연세대학교 학생 대표이니만큼 하는 일도 많고 자기도 자주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엔 총여학생회 선거가 치뤄지지도 않았다. 여기서 또 한 번 시비를 걸어볼까? 왜 총여학생회 선거가 작년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사실 그 이전의 총여학생회 선거란 게 정말 '덤'으로 얹혀지는 종이 한 장 그 이상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런 지루한 반복 속에서 (마치 우리의 일상처럼!) '좀 아녜..'라고 시비 거는 새로운 집단들이 생겨 났었다. 이들이 선거에 낸 구멍은 예상 외로 컸다. 여성 문제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전략으로 동시에 연대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한 주장이 사실 우리들의 뿌리임을 감추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일상이 전쟁터'라고 선언한 바에야 아군/적 갈라놓고 좀 더 비장하게 싸워야 마땅하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단순한 대결 구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일상 속에서 맞물려 충돌하는 것들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종다양한 갑갑함을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풀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자, 그런데... 다시 '총여학생회'라니. 이름도 비장한 '총여학생회'를 다시 고민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이유에서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그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상이며 ‘일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라는 작은(?) 제안일 것이다.”

여기에서 지난 3월 보궐 선거의 해프닝들을 짚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당시 여성문제의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던 ‘여성자치연합’은 그 다양한 전략의 동시 연대를 위해 ‘총학생회’라는 기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회 질서에 대한 회의적인 문제제기 속에 우리는 이 문제를 자치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풀 수 있으리라는 데 일단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했다.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던 중 보궐 선거에 출마한 ‘HOPE’ 팀의 정책과 공약들은 학내에서의 이런 새로운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무지와 여성운동 전반에 대한 오해와 폄하로 일관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당시 아직은 ‘BEYON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회대 여학우 모임에서 자보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유권자 운동’의 측면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선거 파괴 운동’이라는 무수한 비난들... 상식적으로 선거를 통해 우리의 뜻을 대변해 줄 대표를 뽑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선거에 개입할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이 ‘반대표 운동’은 학내 여성 운동의 지형들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이와는 관계없이 어이없는 실수로 ‘HOPE’ 팀은 후보자 박탈 조치를 당했다. 선거에 대한, 학생회에 대한 문제제기에 관한 많은 비난을 접하면서 ‘권력의 위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과연 시기상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권력의 위임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우리는 ‘권력을 위임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그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상이며 ‘일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라는 작은(?) 제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는 제도적, 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 질서들의 문제의식은 묻혀버릴 수도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연세대학생’ 에겐 ‘총학생회’가 있다. 그러나 이 ‘총학생회’

라고 하는 구조가 기반한 논리 속에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상, 특히 여성의 일상이 그토록 비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읽히는 공/사의 논리 속에서 공적이고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으로 보이는 '총학생회' 구조에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단일한 주체일 뿐이다. '총여학생회'가 더 나으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존재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우리의 일상(단호하게도, 그렇다!)을 기반으로 하는 총여학생회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될 경우를 기대해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만인의 자유, 만인의 평등을 외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구를. 때문에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의 투표로 세워진다는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여학생회 선거는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그 지겨운 일상에 구멍을 내는 일탈의 축제로 재구성되었으면 한다.

셋.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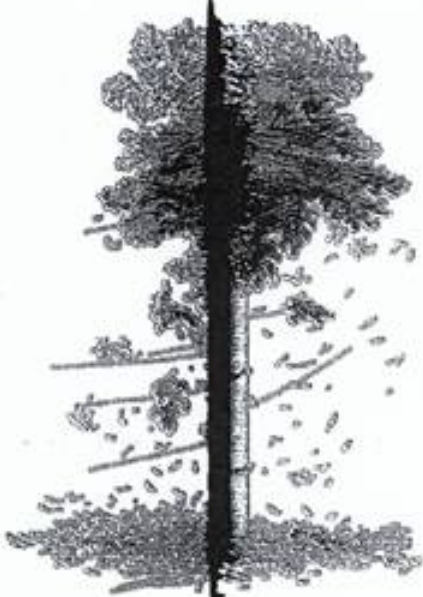
'총여학생회'가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하고 풀어 나가려고 하는 자치 집단들을 보장하는 일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 모여봐라' 식의 탈정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여성 운동 특유의 정치성인 것이다. 한 사람의 여성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또 얼마나 다른 각각의 개인들인가. 우리들의 다양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멋대로 선 그어지고 유형화 되었던 것을 이제는 그저 넘기지 않으려

1. 누가 진짜 여성운동을 하느냐는 식의 판가름기가 아니다. 우리는 당시 그들에게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대외하고 논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그들은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이 공개 유세 때 자유 발언대를 요청하는 학우들을 위로 한 채 사라져 버린 해프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성주의라는 말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들 특유의 관계 맺는 방식이다.”

한다. 다른 느낌의 개인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을 표현하고 조절해 가며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자치 질서들 위에서 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학생회’ 구조 안에 있다는, 다른 자치 질서들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이 있다. 바로 학교와의 통로나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의 통로에서 그러하다. 지금은 단일한 이 통로를 일단은 ‘총여학생회’에서 여러 갈래로 뿔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이쯤하여 ‘여성주의 권력’의 확산이다. ‘여성주의’라는 말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들 특유의 관계 맺는 방식이다.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중심이 아닌, 지도자가 지배자가 되지 않는, 느슨한 중심과 주변의 연대. 이쯤 되면 모두가 평등한 이상주의 사회를 그리는 거냐는 힐난이 터져 나올 법하다. 그런 이상주의 사회를 우리는 도그마적으로 상정해 놓지는 않는다. 그저 상상해 보는 것 뿐이다. 이러한 상상이 지금 실제로 실험되고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보지 않으려 함은 어떤 의미에서 운동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인 상상력을 소진해 버렸다는 의미는 아닐지.*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광고 카피만은 아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삶이 보태지고 피가 더해져 마침내 숨쉬는 생명력을 갖게 될 상상력을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바꾸겠다’는 용기일 것이다.



2. '들꽃 모임'에 대한 글을 참조하세요.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방향성

첫째,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을 우선으로 한다. 학생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의 개혁할 부분을 인식한다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 또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억압과 부조리한 면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며 그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복지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와 운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여성운동의 필수적이고 존속적인 것이다. 바늘가는 데 실 따라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의 존재의 논의

총여학생회는 사실 없어져야 할 과도기적 단체이다. 왜냐면 남학우나 여학우나 모두 총학생회의 구성원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므로 학내의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총여학생회는 존재하고 있고, 총여학생회의 투표에는 여학생만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총여학생회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유는 남학우와 여학우가 성의 편견 없이 동등하게 총학생회에 진출할 수 있는 학내 분위기와 의식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학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남학우와 여학우가 공존하는 총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때까지 총여학생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총학생회는 여성의 복지를 위한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남성의 성차별, 성억압에 관한 인식 역시 인식부족이다.

둘째, 우리의 이슈: 순환의 고리를 끊자.

지금까지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순환의 고리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 그 본연의 진실을 얘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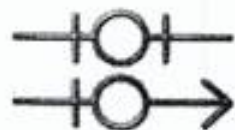
그동안의 논의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서 오는 억압구조가, 성 그 자체에서 오는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부장제의 타파(물론 가부장제는 타파되어야 한다)를 주장했지만 결국엔 그 이면에는 가족의 개념까지 파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타고난 성에 의해 발생하는 모순인가?

우리가 인식하는 성차별적인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타고난 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성의 차이를 인정한다. 서구의 산업화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해왔던 남성 성역할과 여성의 역할 중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남성의 역할이었다. 자신의 역할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될 수 밖에 없고, 그리하여 억압받는 상황



까지 이르게 되었다. 산업발전의 구조를 따르지 않는 제 3세계의 여러사회를 보면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입증해 준다. 그 사회에서는 인정되는 공식적인 부분이 여성의 역할이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논의하는 사회의 부조리는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되는 것이며, 그것이 성장에서 오는 억압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파생된 것이다. 우리는 가부장적 제도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지위에서의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 가족이 가부장적인 제도라고 해서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대안적인 가족제도로써 제시하는 여러 유형들은 일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대안적인 가족제도가 실현될 경우 사회구조의 변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억압받는 세력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여성이 아닌 동성간의 억압구조라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소수의 여성운동가들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닌 대중과 함께 공감할수 있는 실제적인 사회변혁을 이끌수 있는 여성운동을 주장한다.



넷째, 이 두그림은 거울을 보는 여자, 창과 방패를 가진 남자를 모델로 그려 낸 남성과 여성의 상징기호이다.

동그라미는 공유된 부분이지만 동시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과 남성의 우월/대립구조의 순환이었지만 이제는 본질적인 성차를 넘어선 동등함을 지향하고자 한다. 즉 성차의 우열관계를 넘어선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해 여성운동의 여러 왜곡들을 극복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것을 가운데로 끌어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여성들 사이의 '같음' 과 '다름'

- 여성연대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고민과 갈등 -



여성과 남성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이론들 중 어떠한 입장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여성 해방론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상이한 입장을 같음과 다름이라는 개념들을 축으로 하여 구분하자면,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다름보다는 같음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거부한다. 비록 생물학적 다름으로부터 성적 정체성이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성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같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며, 여성의 자유는 인습과 이데올로기 및 제도로 인한 성적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획득된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여성의 같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가부



장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자유가 실현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의 자유는 가부장제로부터의 자유이다.

새째, 남성과 여성이라는 보편적 범주와 '가부장제'라는 개념자체를 물역사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일체의 본질주의를 거부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다름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의 다름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는 구체적인 개인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겪고 있는 다수의 다양한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자유주의 여성 해방론, 급진주의 여성해방론, 그리고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으로 규정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동일성의 정치학

1. 자유주의 여성해방론: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다

자유주의 여성 해방론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정치 사상에 그 뿌리를 둔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아 성취를 보장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이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1792년 메리 월스톤 크래프트는 [여성권리의 옹호]라는 저술을 통해 당시 자유주의 논의에서 언급되던 '개인'의 범주가 남성=그것도 한정된 계층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진 이성의 사고와 판단 능력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여성을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이 이성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함을 의미하였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열등성은 교육기회의 부재에서 올 뿐이라고 그는 믿었으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성 능력의 소유자라는 견지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테일러와 밀에 의해 계승된다.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의 이론가들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교육과 훈련, 취업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면 고용 부문에서의 차별이 제거되고, 모든 개인들은 자기 성취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의 영향하에서 자유주의 여성 해방론은 사적 영역의 변화를 법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



여 모순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일하고 재산을 소유하며, 선거와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형식적인 인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적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간의 공통성만을 고려한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고립된 원자적 존재로 이해되며, 인간이 처한 역사적 현실은 무시된다. 즉 각 개인이 갖는 성격, 나이, 문화, 인종, 성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원리의 제도화는 공적 영역에 국한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며 또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가정은 사적 영역이다. 그리고 성차별적 사회,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은 남성이 우두머리가 되는, 즉 남성이 지배권을 갖는 영역이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와 이로부터 수반되어 여성에게 부담으로 주어지는 사적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공적 영역에서 주어지는 기회의 평등은 여성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구가하고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지 못한다.

2. 급진주의 여성해방론: 남성과는 다르지만 여성들끼리는 같다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의 실천적 전략은 동일성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은 남녀평등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보다는 양자가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동일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성차를 중시하지 않는 동일성의 정치학은 여성의 특수한 조건과 체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는다.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부분적인 도전일 뿐,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발전한 것이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이며, 이는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들에 대폭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급진적 여성해방론이 다양한 차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은 '가부장제'라는 제도와 문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이다. 가부장제와 그 문화는 문명이 기술되는 역사 시대와 더불어 생겨나서, 여성 종속을 역사의 가장 보편적 사실이자 자연법칙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다. 가부장제 문화는 여성의 노동을 상대적으로 열등한 노동으로 만들었다.

가부장제 문화는 권력을 우상화하고 약자를 지배의 대상, 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폭력적 경향을 갖는다. 가부장제는 형성 과정에서부터 힘의 논리로 여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가부장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인류 사회의 존재 방식이라 추정되는 모계제 사회가 전복되어 가부장제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가는 오랜 과정은 다각적인 영역에서 진행된다.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세 영역,



즉 규범과 가치의 영역,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 사회 제도와 조직의 영역을 그 주요 영역으로 들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제도는 위계 질서와 소유권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조직을 발명하는 과정이며, 이는 폭력을 수반한 과정이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도 남신이 여신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해가는 힘겨운 과정이 보이고, 다른

오랜 민담과 설화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나타난다. 초기 국가의 건설 과정을 담은 삼국 시대 건국 신화들은 영웅의 탄생을 '알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등으로 서술함으로써 애써 여성의 출산 역할을 은폐하고 있으며 무수한 여성 강간의 내용을 들어내고 있다. 가부장제를 극복하는 시도는 이에 대한 근본적 비판에서 출발한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에서 지향하는 여성의 자유는 가부장제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갖는 상징과 언어가 인간의 무의식으로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를 경계하는 자유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주의적 여성 해방론에서의 자유를 가부장제로부터의 자유로 본다면, 이 입장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의 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여성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동일서의 정치학의 다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와 여성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본질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여성의 억압을 설명할 경우, 계급이나 인종에 기반한 여성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은 급진주의 여성 해방론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여성 해방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 해방론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모든 여성해방론의 이론들 속에서는 여성들 사이에 놓여 있는 인종적 차이와 불평 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 지금도 고민 여성해방론?



차이의 정치학

1. 자매애에 대한 회의

여성으로서 당하는 성차별주의적 억압에 대항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정치적 연대성을 위한 구호로 내세워지는 자매애는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주의 이론과 여성운동의 실천 진영 내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자매애는 더 이상 설득력도 호소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변화된



여성들의 억압을 은폐하는 역기능을 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은 여성들 사이의 정치적 연대나 저항적 투쟁을 강화시키는 단합 정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나 주장이 아니다. 갈등을 간과한 갈등의 강조로서 표현되는 자매애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많은 여성들이 여성에 의해 억압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매애를 요구하기 이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여성의 결속을 말하기 전에 여성과 여성을 분열시키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규명해내고 여성 대 여성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여성의 희생에 대가로 하여 자립성과 권력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타인이 치르는 희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여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글이 써여져야 한다는 요구를 함축한다. 또한 이는 무엇보다도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혹은 여성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폭력, 억압, 여성 사이의 적대감, 경쟁과 같은 분열의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함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다름이 반드시 분열로 귀착되는 필연성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름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분열은 다름의 한 표현으로서, 다름의 특정한 즉 '적대적인' 표현 양상이다. 서 있는 자리의 다름과



상황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적대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할 수 있어야 자매에는 지지될 수 있다.

2. 포스트모던 여성 해방론

여성의 동일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 제기 속에서 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던적 경향은, 특히 본질주의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비판은 여성주의 이론에서 결정적인 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포스트모던 여성 해방론은 '주체'는 다만 이름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의 사유방식을 채용한다.

인간은 각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다수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보편적인 본성이나 특성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주의가 더 이상 여성이라는 본질주의적 개념에 기반을 둘 수 없으며, 모든 여성들에 의해 공유되는 성별 정체성이나 여성의 이익에 기반을 둘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백인 중산층 여성이나 지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마치 모든 여성들의 체험인 것처럼 규범화하는 경향은 또 다른 하나의 획일주의적 억압이라는 것이다. 물론 포스트모던적 여성 해방론이 여성해방론인 이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다는 공통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계급, 인종, 민족의 경계를 가로질러 여성들을 연합시키는 공통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일성과 통일성 그리고 동일성의 이름하에 본질주의와 보편주의가 차이와 다원성을 억압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장점은 이제까지 보편주의의 틀 속에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었던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한 개인이나 집단을 억압하고 예속하고 주변화하는 요인들은 성 이외에도 인종/민족,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계급/계층 등 다수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사이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모든 차이와 특수성이 한 개인의 주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이다. 결국 차이는 효율적인 저항에 장애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자원이라는 것이 차이의 정치학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은 모든 여성이 공유하는 정체성보다는 남성적 규범의 지배 아래서 개개의 여성이 처해 있는 다양한 억압적 상황과 불평 등을 분석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통일된 여성



적 주체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통일된 남성 주체 역시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가부장적 담론도 반드시 희생자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또한 새로운 연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모든 다원주의와 마찬가지로 상대주의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 기반한 존재론은 주체를 해체하고, 보편성을 거부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천적 주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체를 부정하는 것은 여성주의 이론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즉 여기에 내재해 있는 상대주의는 여성주의의 정치적인 프로젝트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이다.



같음과 다름을 넘어서

동일성과 차이(동일성에 대한 저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포스트모던 여성 해방론과 같이, 주체가 의미화하는 실천(담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차이성이 강조되고, 동일성은 그 기반을 잃게 된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집단을 묶어주는 최소한의 공통성이 있어야만 공동의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려는 실천적 주체와 주체 의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급진주의 여성해방론과 같이 여성을 보편적 실체로 상정하고 그와 더불어 보편적인 여성적 관점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차이를 추상화하는 보편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체 위치의 다양성/다수성이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반드시 주체성의 전면적인 부인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



다. 그리고 동일성과 차이, 평등과 차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평등과 차이는 이분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 평등과 차이가 이분법적으로만 사유된다면 여성주의자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선택이 된다.

만일 우리가 평등을 선택한다면 차이는 평등의 반명제라는 생각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고, 차이를 선택한다면 평등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는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한 평등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성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평등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차이를 평등의 반명제로 설정하는 이분법적 사유의 배후에 있는 권력 구조를 분석해내야 한다. 여성주의는 그들이 발명해내지도 않은 이분법적 범주 속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 평등의 반대어는 불평등이며 불공평함이다.

그러므로 평등의 정치적 의미는 차이의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을 내포하며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에 대한 요구와 주장은 남녀의 성차를 거부하지 않고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차이의 반대어는 평등이 아니라 같음과 동일성이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에 대한 대안은 같음이나 동일성 혹은 양성성이 아니다. 동일성이나 양성성을 대안으로 상정할 때, 여성적인 것은 긍정적인 남성적 정체성의 부정적 대립물이 되며 남성 주체의 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을 보편적 인간 동일성에 포섭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겪은 체험의 특수성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여성들의 특수한 조건을 간과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같음 혹은 동일성이 여성주의가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남성의 같음/여성의 같음도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필요가 없다. 남성/여성이라는 범주 속에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상정된다면, 여성들 사이에 있는 차이가 억압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이질성과 여성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단일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여성주의가 차이의 정치학을 채택하면서도 여성주의의 지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취하는 관점이 부분적이며 각자가 처한 주체의 위치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지평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연합과 연대의 토대는 통일적인 정체성이 아닌 여성의 공동 관심에서 찾아야 한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세계를 재해석한다는 것이며, 여성 비하적인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식민화된 의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로워짐에 대한 공동의 지향과 자유로워짐을 위한 공동의 연대가 '차이 속에서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정치에 대해 말한다. ♂

95년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성정치 문화제 '나를 강간하라'를 기억하는가? 또 여성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열린 96년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다. 당시 그것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논객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그들의 목적 중 하나인 '성을 햇빛아래서 보기'가 달성되는 듯 보였다. 성정치가 유행어처럼 회자되었고, 추종자와 혐오자들로 이루어진, 극과 극의 반응까지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유행'처럼 끝나버린감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다. 성정치가 제기한 문제의식 '기존의 성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담론을 벗겨야 한다'는 유행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과 동조,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성의 양성화를 이루는 일이 대중과의 논의와 공론의 장이 아닌 일방적 충격과 자극으로 일관된 감이 있다. 이것은 성정치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논의를 넘어선 외부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인식한다.

여성운동-그 영원한 좌파

여성운동은 한마디로 억압받는 성, 즉 여성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거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여성의 문제에만 국한될 것인가? 물론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심지어 성정치에 대한 논의에서도 말이다. 이것은 뒤에서 논하기로 하자-여성의 문제는 곧 남성의 문제도, 직결되는 것이며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제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여성운동은 단순히 성을 담보로 하는 사회 변혁의 움직임이 아니라, 심지어 억압받고 있는 남성들(무엇에 억압을 받고 있든지 간에)도, 성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장애인도, 노인도, 소외받는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실로 광범위한 운동이다. 이에 여성운동은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 되어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마치 이상사회가 오는 그 날까지 좌파일 수밖에 없는, 보수 세력에 대한 반향이다.



대중과의 합일-여성운동이 지향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점

소위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운동의 방향은 절대 우매한 대중에 의해 이끌려 가는 안될 중요한 사안이다... '우매한 대중'에 대한 논의는 실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논해왔던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라는 지적도 함께 있어왔다. 그러나 대중이 우매하여, 현실인식을 못하고 거기서 오는 물이해를 비난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여기서 '우매'란 그들의 자의적인 기준일 뿐이다. 어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매라고 지정한다는 것은 정작 운동하는 사람들의 자세로서 배척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을 거듭한 결과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에 대해 그것의 가치를 경량화하는 얘기는 아니다. 요컨대, 정작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주체는 대중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중의 동조와 이해를 간과한 운동은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대중과의 함께가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오래된 고민

성정치가 제기하는 문제의식들은 상당부분 타당성을 지녔으며 특히 성의식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성운동이 논의를 은근슬쩍 피해왔던 부분들이 있다. 성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의 대중과의 공감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웠다. 이론과 사상이 현실속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느냐, 그저 강하게 밀고 나가 우리의 주장을 외치면 된다...는 식의 성급함은 많은 예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언제나 실패해왔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갑오경장이 3일천하로 끝난것부터 근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자들이 결국 그들이 비판했던 멘셰비키 파의 온건적 노선을 채택,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는 것이 그것이다. 기독교가 왜 로마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적 종교가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당시 대중을 구성하고 있는 억압받는 자, 여성, 가난한 자들에게 공감과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이 결단코 운동에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의 운동에 대한 논의가 유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성급하게 먹는 음식은 급체를 불러일으킨다...

성정치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내용은 범인류적인 억압받는 자들의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닌가?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외국의 사상과 이론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한국적 소화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논의이며 그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충분한 토의와 고민은 바로 이러한 점을 포함한다. 특히 우리 학내에서의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외풍적 행동들은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제 10대 여학생회의 선거에서 보여준 여학생회의 불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보자. 기존의 여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문제의식에는 동감을 하나 과연 여학생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름으로 공론의 장 마련해 왔는가? 물론 여학생회가 있을 때에도 공론의 장이 잘 마련되었다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진지하게 했다면 8개월새에 입장을 바꾸어 여학생회에 후보를 내는 식의 비일관성은 없었을 것이다. 여학생회라는 것은 억압받는 이들이 더 이상 없어서 그들이 할 일이 없을 때까지 존재해야 하는, 모순된 학내 구조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해야 하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연대의 필요...보수세력화를 거부한다.

다음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비록 사회운동이라고 할 지라도 어떤 주류가 정해지면 그 사회운동 체계내에서의 보수세력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떠한 운동이라도 보수세력화하는 것을 거부한다. 결국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은 억압의 굴레를 벗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열려진 장을 마련 서로의 연대를 꾀하고자 한다.

